

제248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 3 호)

해운대구의회사무국

2020년 6월 2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1면
 - 가. 의장 선거 1면
 - 1) 신상발언(이명원 의원) 1면
 - 2) 의장(이명원 의원) 당선인사 4면
 - 나. 부의장 선거 5면
 - 1) 신상발언(장성철·조영진 의원) 5면
 - 2) 부의장(장성철 의원) 당선인사 8면

○의장직무대행 임말숙

(10시 05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의사팀장 박현주입니다.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신청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장 후보자로 이명원 의원, 서정학 의원이 신청하였으며, 부의장 후보로 장성철 의원, 김정욱 의원, 조영진 의원이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 철회 사항입니다. 의장 후보자로 신청한 서정학 의원, 부의장 후보자로 신청한 김정욱 의원으로부터 각각 철회 신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임말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가. 의장 선거

1) 신상발언(이명원 의원)

○의장직무대행 임말숙

(10시 07분)

오늘부터는 8대 의회 후반기를 이끌어 나갈 의장단 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 진행은 의장 선거를 먼저 실시한 후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서정학 의원의 신상발언 철회요청서가 접수되어서 의장 선거는 찬반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에 신상발언 신청순으로 10분 내 정견발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명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후보 이명원

오래간만에 서 보는 자리입니다만 오늘도 역시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정학 의원님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과 함께 그동안 동반자로서 도와주셨는데 제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한 점이 자리를 빌려서 아쉽다는 말씀도 덧붙입니다. 흔쾌히 양보해 주신 점 가슴에 잊지 않고 살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을 한번 돌아켜봤습니다.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도와주신 덕분에... 우리 의회가 부산에서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싶어 하는 멋진 의회로 2년간 의정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준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남아있는 하반기 2년은 이번 2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우리 의회를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같이 도와주신다면 신나는 의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일 처음 우리 의회가 열리고 나서 국외연수를 갔다 왔는데 주민들이 예전에는 없던 국외연수보고회를 요구했고, 저희는 주민의 뜻에 따라서 국외연수보고회를 잘 준비해서 성공적인 보고회를 했고, 또 갔다 왔던 도시와 함께 해외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감사편지 보내기 운동을 했다든지, 또는 책 보내기 운동을 통해서 새마을단체와 함께 연계하는 활동을 전개했었던 것은 지금 생각해도 좋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종이 없는 의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난번 반송에서 운봉산 산불이 났을 때 우리가 국내연수 중이었는데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차를 돌려서 운봉산으로 가서 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루겠다고 했듯이 직접 발 벗고 불을 껐던, 그래서 우리 여성 의원 세 분이 목숨이 위험한 상황까지 간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서울 성북구에 도시재생의 벤치마킹을 위해서 거의 노는 시간 없이 열심히 서울 시내를 누볐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이상곤 의원님이 주도하셨지만 헌혈 캠페인을 통해서 부산에서 최초로 헌혈의 날을 제정했던 것 같고, 또 얼마 전 김백철 의원과 함께 우리 해운대구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법률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도 맺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처음 시작하는 스타트업 기업

들도 같이 넣어서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봤습니다.

결산 검사를 형식적으로 해오다가 예산과 연계한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해서 올해와 작년 결산 감사의 활성화를 이루어냈던 것 같고, 이 모든 것들은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하나, 하나 해내기 어려웠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선만큼 앞으로 뭘 하겠다는 것보다는 의원님들과 함께 한 분, 한 분의 뜻을 좇아 주민을 바라보고 우리 의정 활동의 중심에 주민을 놓고 할 수 있도록 상반기와 똑같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을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학 의원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의장직무대행 임말숙

이명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투표 진행에 앞서 투·개표 상황의 점검과 계산을 위하여 감표 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으로 원영숙 의원, 김정욱 의원 두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감표 위원석으로 나오셔서 투표함과 명패함의 이상 유무와 투·개표 상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투표 절차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근거해 있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1인이더라도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며,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게 됩니다. 기타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제 발송해 드린 무효표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서는 감표 위원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 내에 준비되어 있는 기표 용구로 투표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표 위원님께서서는 투표용지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 위원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호명에 따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의 서명이 끝났으므로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0시 16분 투표시작)

문현신 의원님, 김혜진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이상곤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장성철 의원님, 정순세 의원님, 이명원 의원님, 조영진 의원님, 서정학 의원님,

진행석에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248회-제3차)

(사무직원, 투표용지 전달)

다음은 감표 위원이신 원영숙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정욱 의원님.

○의장직무대행 임말숙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 확인)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찬성 14표, 반대 4표, 재적의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명원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장(이명원 의원) 당선인사

○의장직무대행 임말숙

(10시 32분)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명원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당선자 이명원

감사합니다. 처음 인사말을 하러 나왔을 때보다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정학 의원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기쁨과 영광은 여러분께 돌려드리고, 저는 책임만 갖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의 힘에 의해서 깨진 알은 바로 죽어버리지만 내부의 힘에 의해서 깨진 알은 새로운 삶을 갖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대한 일은 내부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2년간 내부에서 커다란 변화를,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힘을 좀 더 뭉쳐서 더 큰 변화, 더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해운대구의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질책해 주시고 조언도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북극성처럼 영원히 변치 않는 의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임말숙

의장으로 당선되신 이명원 의원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전하고, 서정학 의원님께 해운대구의회의 전체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 철회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나. 부의장 선거

1) 신상발언(장성철·조영진 의원)

○의장 이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말숙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부의장 선거를 하겠습니다.

먼저 신상발언 신청을 하신 의원님의 정견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의원, 먼저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후보 장성철

먼저 우리 김정옥 의원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회를 해주셔서...

해운대구의회 의원으로서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난날을 돌아해보면 정쟁과 당리당략[黨利黨略]에 자존심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한쪽이 옳다며 손을 들었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또 이게 정치인가 하며 나 스스로를 위안삼기도 하면서 술을 들이키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시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원직 선거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짜 한번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저 장성철,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솔직히 정치가 무엇인지도, 당리당략이 무엇인지도, 또 내가 속한 당이 원하는 것이 뭔지도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한 가지는 압니다. 그것은 바로 해운대구 주민을 위하고 당대 당이 아닌 여기 계신 동료의원 모두 서로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통점은 분모를 키우고 분자를 적게 하는 데 같이 힘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이며, 같은 힘 속에서 더 큰 힘을 가진다는 것만 압니다.

또한 저는 의리밖에 없는 장사꾼입니다. 장사꾼에게는 신뢰와 믿음만이 영원할 수 있으며, 그렇게 신뢰와 믿음으로 평생 장사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제가 판단해서 맞다고 생각되면 여야 구분 없이 어떠한 일이든 같이 갈 것이며 영원히 함께하는 동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한번 믿고 같이 갑시다. 누구든지 손을 잡아준다면 평생을 같이하는 영원한 동지로, 함께하는 동료로 꼭 같이 가겠습니다. 모두가 파이팅하시고 설령 오늘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이것이 끝이 아닌 만큼 승자도 패자도 없이 깨끗이 승복하고 오늘로써 말끔히 잊어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말이 길면 변경이 됩니다. 또 그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가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말을 길게 안 하겠습니다. 또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정견발표를 마치면서 어쨌든 지난 2년간 저에게 질책과 관심과 걱정을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장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후보 조영진

존경하는 이명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반여1·4동 지역에 지역구를 둔 제8대 구의회 후반기 부의장에 출마한 조영진 의원입니다.

저는 지리산 골짜기 경남 함양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 대학 졸업, 군대 제대 후 부산에 와서 어느덧 반송에 산 지 3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으로 사회 출발, 현재 해운대구의 재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매사에 어떤 일이든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8대 해운대구의회 부의장으로 출마해 당선이 된다면 이렇듯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해운대구의회 발전은 물론 구 발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의원님들 간의 친목 도모는 물론 구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 역할에도 충실하며, 구의회의 수장이신 의장님과 함께 항상 긴밀하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의 견제와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이나 적재적소[適材適所]의 집행 여부를 잘 챙겨야 할 것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할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회가 추구해야 할 구민을 위한, 구민에 의한, 구민의 뜻에 의한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에 후보 등록을 하다 보니 동료의원 여러분께 전화 한 통화도 못 드리고 문자 하나도 드리지 못한 상황에서 출마하게 된 데 대해서 깊은 사과와 용서를 빕니다.

끝으로 출마하신 장성철 의원님께서도 항상 무궁한 발전이 함께 하시길 빌며, 오늘 당선되신 이명원 의장님께 다시 한 번 당선 축하인사를 드리며, 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지도 편달이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김정욱 의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모로 판단해 볼 때 과연 이것만이 상책인가, 의원 상호 간의 신뢰도 내부적으로 중요합니다. 의회는 나이도 중요하지만 선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의장단 선거를 지켜보면서 몇몇 의원님들의 행동에 유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 합의해 가면서... 상호 신뢰하는 부분이 아주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 점 너그러이 판단하여 앞으로는 선수 위주의 의회 질서가 확립되길 바라며, 의장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의회의 상이 정립되길 재선 의원으로서 간곡히 요망하는 바입니다.

저는 어제 출마하지 않겠다고 분명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너무 질서도 없이 혼란이 초래돼 어제 오후 6시, 2분 전에 이 포부를 했습니다만 제가 스스로 한 약속 이행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통 큰 양보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김정욱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명원

조영진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장 이명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표 위원께서는 부의장 선거에도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의장 선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은 아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이 호명할 겁니다.

○의사팀장 박현주

투표 절차는 의장 선거 투표와 같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감표 위원의 서명이 끝나는 대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 위원, 투표용지에 서명)
감표 위원의 서명이 끝났습니다.
명패함과 투표함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 위원,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투표시작)

문현신 의원님, 김혜진 의원님, 최은영 의원님, 박기훈 의원님, 김백철 의원님, 이상곤 의원님, 김경호 의원님, 김성군 의원님, 박성식 의원님, 김상수 의원님, 장성철 의원님, 정순세 의원님, 임말숙 의원님, 조영진 의원님, 서정학 의원님,

의장님께서는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투표용지 전달)

다음은 감표 위원이신 원영숙 의원님, 마지막으로 김정욱 의원님.

○의장 이명원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투표종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열고 명패수 확인)

명패함을 확인한 결과 명패수는 모두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 투표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열고 투표매수 확인)

투표수를 계산해 본 결과 18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투표 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8표 중에서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장성철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의장(장성철 의원) 당선인사

○의장 이명원

(11시 26분)

장성철 의원 나오셔서 당선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당선자 장성철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가슴이 떨리는데 먼저 우리 조영진 후보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정욱 의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까지는 초선으로서 지역 봉사만 했는데... 의원으로서 아직 부족한 게 많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많이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의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믿음을, 사랑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오늘 당선된다고 생각도, 솔직히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렇게 어깨가 무겁게 의원님들께서 해주시니까 너무나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정말 의회의 발전과 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명원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장성철 의원께 다시 한 번 축하를 드립니다.

의장·부의장 선거에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정회)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석의원 : 18인

이명원 임말숙 문현신 김경호 원영숙 김정욱 최은영 김상수 김백철 박성식 장성철
이상곤 박기훈 조영진 김성균 서정학 정순세 김혜진

○의회직원

사 무 국 장 이승용
의 사 팀 장 박현주
사 무 직 원 박진우
사 무 직 원 김숙경
속 기 사 김혜미

■ 참고사항

1. 하반기 의장단 선거 관련 신상발언 신청

구 분	신 청 자	신 청 일
의 장 후보	이명원	6월 22일
	서정학	6월 22일
부의장 후보	장성철	6월 22일
	김정욱	6월 22일
	조영진	6월 22일

2. 신상발언 신청서 철회

의 장 후보	서정학	6월 23일
부의장 후보	김정욱	6월 23일

3. 의장.부의장 선거 결과

선 거 명	후 보 자	투표 결과 (1차)	비 고
의장	이명원	찬성 14표 반대 4표	-
부의장	장성철	찬성 10표 반대 6표	기권 1표 무효 1표
	조영진	-	사퇴